

2006년 화재발생 분석



한 상 대 >>
소방방재청 정보화기획관 소방준감

1. 서론

2006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총 31,778건의 화재로 인하여 2,180명의 사상자와 1,50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일평균 87.1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97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되었고 4.1억원의 재산이 불길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신고 되지 않은 화재나 화재로 인한 기회손실 비용을 감안한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표 1. 화재발생 총괄 현황

연도별	구분	발생건수	인 명 피 해 (명)			재산피해 (백만원)
			계	사 망	부 상	
2006년		31,778	2,180	446	1,734	150,792
2005년		32,340	2,342	505	1,837	171,374
대 비	증 감	△562	△162	△59	△103	△20,582
	%	△1.7	△6.9	△11.7	△5.6	△12.0

또한 방화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요구되는 가운데 2006년도에도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명(사망 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서울 송파구의 노래연습장 화재(7월)와 23명(사망 5명)의 사상자가 난 충남 공주의 정신과 병원 화재(10월)이다.

이 글에서는 2006년도에 발생한 화재를 건수, 사망자, 재산 피해액, 방화(放火) 통계등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2006년도 화재의 양상과 추세를 파악해 보았다.

2. 2006년 화재현황

2.1 화재건수

2006년도에 발생한 총 화재건수는 31,778건으로

표 2. 원인별 화재발생 건수

(단위:건)

구분	계	전기	담배	방화	불티	불장난	아궁이	가스	난로	유류	성냥양초	기타
연도별												
2006년	31,778 (%)	9,392 (29.6)	3,311 (10.4)	3,413 (10.7)	2,416 (7.6)	1,165 (3.7)	645 (2.0)	535 (1.7)	301 (0.9)	291 (0.9)	295 (0.9)	10,014 (31.5)
2005년	32,340 (%)	9,971 (30.8)	3,289 (10.2)	3,316 (10.3)	2,460 (7.6)	1,120 (3.5)	751 (2.3)	589 (1.8)	369 (1.1)	334 (1.0)	280 (0.9)	9,861 (30.4)
대비	건수	△562	△579	22	97	△44	45	△106	△54	△68	△43	153
	%	△1.7	△5.8	0.7	2.9	△1.8	4.0	△14.1	△9.2	△18.4	△12.9	5.4

표 3. 장소별 화재발생 건수

(단위:건)

구분	계	주 택 아파트	차 량	공 장 작업장	음식점	점 포	사업장	호 텔 여 관	선 박	기 타	
연도별											
2006년	31,778	8,234 (25.9)	5,929 (18.7)	3,261 (10.3)	1,960 (6.2)	1,685 (5.3)	470 (1.5)	278 (0.9)	74 (0.2)	9,887 (31.1)	
2005년	32,340	8,411 (26.0)	5,883 (18.2)	3,358 (10.4)	2,152 (6.7)	1,643 (5.1)	588 (1.8)	294 (0.9)	86 (0.3)	9,925 (30.7)	
대비	건수	△562	△177	46	△97	△192	42	△118	△16	△12	△38
	%	△1.7	△2.1	0.8	△2.9	△8.9	2.6	△20.1	△5.4	△14.0	△0.4

이는 2005년도에 비하여 건수로는 562건, 비율로는 1.7%가 감소한 수치이다.

총 화재건수를 원인에 따라 분석하면 전기로 인한 화재가 9,392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화가 3,413건(10.7%),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3,311건(10.4%)을 차지하고 있다. 불티, 불장난, 아궁이 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도 화재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를 장소별로 분석하여 보면 주택·아파트 화재가 8,234건(25.9%), 차량 화재가 5,929건(18.7%), 공장·작업장 화재가 3,261(10.3%)건으로 전체화재의 54.9%를 차지하고 있다.

2.2 사망자

사망자를 화재원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방화로 인한 사망자가 139명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31.2%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전기화재가 43명(9.6%), 담뱃불에 의한 화재가 17명(3.8%)을 차지하고 있다.

화재장소에 따른 사망자 숫자는 주택·아파트가 285명(63.9%), 차량 및 음식점 화재가 각각 46명(10.3%), 15명(3.4%)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도에 비해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인 42.1%가 증가한 반면 차량화재의 사상자 수는 28명인 37.8%가 감소하였다.

표 4. 화재원인별 사망자 수

(단위:명)

구분	계	방 화	전 기	가 스	담 배	불 티	아궁이	유 류	기 타
'06년도	446 (%)	139 (31.2)	43 (9.6)	7 (1.6)	17 (3.8)	9 (2.0)	6 (1.3)	5 (1.1)	220 (49.3)
'05년도	505 (%)	134 (26.5)	44 (8.7)	12 (2.4)	29 (5.7)	7 (1.4)	7 (1.4)	9 (1.8)	263 (52.1)
증감 (%)	△59 (△11.7)	5 (4.5)	△1 (△4.5)	△5 (△41.7)	△12 (△41.4)	2 (28.6)	△1 (△14.3)	△4 (△44.4)	△43 (△17.9)

표 5. 화재발생 장소별 사망자 수

(단위:명)

구분	계	주택	아파트	차량	공장	여관·호텔	점포	음식점	기타
'06년도	446 (%)	231 (51.8)	54 (12.1)	46 (10.3)	10 (2.2)	13 (2.9)	12 (2.7)	15 (3.4)	65 (14.6)
'05년도	505 (%)	251 (49.7)	38 (7.5)	74 (14.7)	21 (4.2)	16 (3.2)	12 (2.4)	13 (2.6)	80 (15.8)
증감 (%)	59 (△11.7)	△20 (△8.0)	16 (42.1)	△28 (△37.8)	△11 (△52.4)	△3 (△18.8)	0 (0.0)	2 (15.4)	△15 (△18.8)

2.3 재산피해

2006년도 화재로 인한 총 재산피해액은 1,508억 원으로 집계 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206억 원인 12%가 감소한 것이다.

화재발생 장소에 따른 재산피해액은 공장이 405억 원, 주택이 222억 원, 차량화재가 126억 원의 순으로 피해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화재 원인별로 구분하여 보면 전기화재가 418억 원, 방화가 116억 원, 불티로 인한 화재가 91억 원의 재산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을 인구수에 대비하여 보면 2006년도에는 1인당 3,109원, 2005년도에는 1인당 3,549원의 재산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방화

2006년 방화는 전체 화재 31,778건중 10.7%인 3,413건이 발생하였다. 화재 사망자 446명중 31.2%인 139명이 방화로 사망하였으며 재산 피해액도 전체 화재 피해액 150,792백만원중 7.7%인 11,629백만원에 이른다.

표 8의 5년간 방화현황에서 보듯이 2002년에 대비하여 볼 때 전체 화재가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로 인한 화재건수, 사망자, 재산피해액은 계속해서 증가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표 6. 화재원인별 재산피해액

(단위:억원)

구분	계	전기	방화	불티	담배	난로	유류	가스	아궁이	불장난	기타
'06년도	1,508	418	116	91	47	20	17	15	15	13	756
'05년도	1,714	446	110	74	43	18	12	15	16	14	966
증감 (%)	△206 (△12.0)	△28 (△6.3)	6 (5.5)	17 (23.0)	4 (9.3)	2 (11.1)	5 (41.7)	0 (0)	△1 (△6.3)	△1 (△7.1)	△210 (△21.7)

표 7. 장소별 재산피해액

(단위:억원)

구분	계	주택아파트	차량	점포	창고	공장작업장	음식점	사업장	시장	건물기타	기타
'06년도	1,508	255	126	93	86	483	56	28	15	193	173
'05년도	1,714	246	121	109	100	490	72	25	196	159	196
증감 (%)	△206 (△12.0)	9 (3.7%)	5 (4.1%)	△16 (△14.7)	△14 (△14.0)	△7 (△1.4)	△16 (△22.2)	3 (12.0)	△181 (△92.3)	34 (21.4)	△23 (△11.7)

표 8. 최근 5년간 방화현황

구분	'02	'03	'04	'05	'06	'02 대비 '06 증감	
화재 (건)	전체	32,966	31,372	32,737	32,340	31,778	△1,188
	방화	2,778	3,219	3,291	3,316	3,413	635
	방화/전체	8.4%	10.3%	10.1%	10.3%	10.7%	22.9%
사망 (명)	전체	491	744	484	505	446	△45
	방화	105	361	144	134	139	34
	방화/전체	21.4%	48.5%	29.8%	26.5%	31.2%	32.4%
재산 피해 (백만원)	전체	143,447	151,590	146,634	171,374	150,792	7,345
	방화	8,184	15,151	10,859	10,752	11,629	3,445
	방화/전체	5.7%	10.0%	7.4%	6.3%	7.7%	42.1%

2.5 시·도별 화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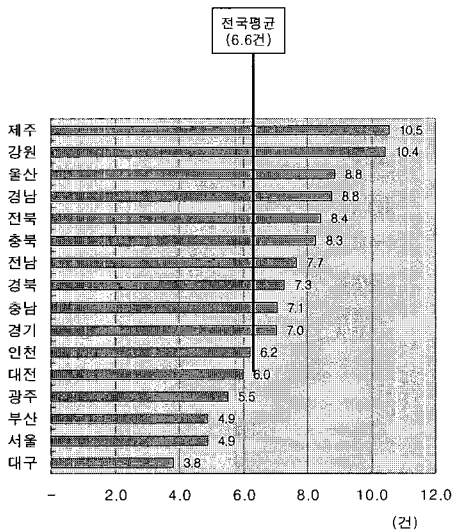
시도별 화재발생 건수 및 사망자 수는 표9와 같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수를 총 인구에 기준하여 분석하여 보면 전국적으로 인구 1만명당 6.6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시도별 총인구에 따라 인구 1만명당 화재발생 빈도는 제주 10.5건, 강원 10.4건, 울산 8.9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구 1백만명당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이 9.2명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18.1명, 강원 17.0명, 경북 13.7명 순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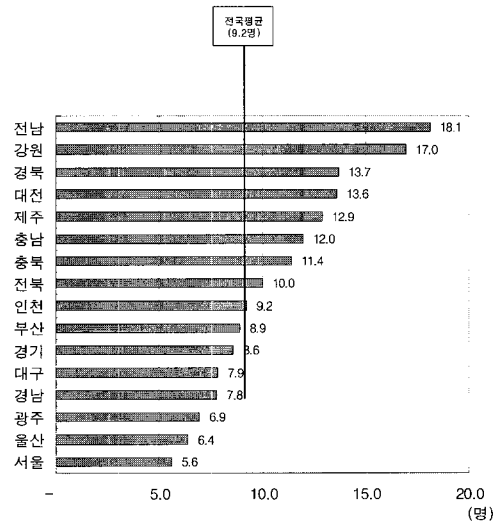
3. 결론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건수는 2001년 36,169건을 정점으로하여 31,000~32,000건대에서 감소된 양상으로 수렴하다가 2006년에는 31,778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도는 전년도에 비하여 화재발생 건수는 물론 사망자수나 재산피해액 모두 감소된 모습을 보여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한 국민의 노력이 소기의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통계는 과거의 화재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것은 화재예방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서 그 의



그래프 1. 인구 1만명당 화재건수



그래프 2. 인구 1백만명당 사망자 수

미가 매우 크다.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통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안을 만들어 화재원인과 발생장소 분류를 법적으로 세분화 하고 기타 화재예방을 위한 중요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서의 화재피해 산정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피해액 산정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 3월부터는 개선된 체계를 가지고 화재피해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더욱 정확하고 정밀한 화재통계가 생산될 것이며 이는 화재예방정책의 과학적 예측력과 정책적 설득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화재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